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4~2/10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일진스님	민족사
2	대승기신론 신강	지안	조계종출판사
3	무비스님의 신심명 강의	무비	조계종출판사
4	연꽃법화경	원순	법공양
5	수호신 기도	묘장	민족사
6	금강경 선물(컬러링 북)	박혜상	불교신문사
7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보만	불광출판사
8	마하시 사야도의 12연기	마하시 아가 마하 뿐디따	행복한숲
9	채근담	홍자성	현암사
10	미술관에 간 스님	보일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통찰의 체험	운주사	조셉 골드스타인
2	법구경	민족사	석지현 옮김
3	번뇌와 함께 춤춰라	운주사	함현준
4	요가디피카	선요가	아헹가/현천 역
5	선심초심	김영사	스즈키 순류/정창영
6	틱낫한 기도의 힘	불광출판사	틱낫한/이현주
7	금강경 핵심 강의	좋은인연	우학스님
8	무비 스님의 신심명 강의	조계종출판사	무비 스님 지음
9	왜 나무아미타불 인가	불광출판사	J.C.CLEARY/우익지욱
10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오타쿠	김성철

의상 화엄사상의 현장을 복원하다



의상 스님의 화엄경문답
최연식 역주
동국대학교출판부
2만3000원



최연식 동국대 사학과 교수.
사진 제공=동국대학교출판부

원저자 찾은 의상 스님 강의록
163개 문답에 담긴 화엄교학 정수
변격한문 장벽 넘어 우리말 풀이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한국불교 사상사 연구의 가장 큰 난관은 '자료의 빈곤'이다. 7세기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도 예외는 아니다. 원효 스님의 저술은 100여 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하지만 오늘날 온전히 남아 있는 것은 10여 종에 불과하다. 의상 스님 역시 〈화엄일승법계도〉라는 독보적인 저술을 제외하면, 주로 제자들의 기록을 통해서만 그 사상의 윤곽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엄경문답〉은 의상 화엄사상을 복원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다. 일본에 전해지던 이 책은 그간 중국 화엄사상을 집대성한 법장 스님(643~712)의 저술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다 1990년대 후반 고(故) 김상현 교수가 이 책을 지통 스님이 기록한 〈추동기〉의 이본(異本)으로 지목하면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후 여러 연구 성과가 보태지면서 〈화엄경문답〉은 의상 스님이 소백산 추혈(錐穴)에서 〈화엄경〉을 강의한 것을 제자 지통 스님(655~?)이 기록한 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화엄경문답〉은 상권 81개, 하권 83개 총 164개의 문답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전승 과정에서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보이는 문답 하나를 제외하면 전체는 163개 문답으로 정리된다.

주목할 점은 이 책이 〈화엄경〉 본문을 조목조목 해설하는 주석서가 아니라, 화엄교학의 핵심 쟁점을 둘러싼 질문과 답변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삼승과 구별되는 일승 보법(普法)으로서의 〈화엄경〉의 성격, 무주(無住)와 무분별(無分別)의 사유, 수행과 과덕으로서의 십지(十地) 등이 반복적으로 논의된다. 특히 '삼승극과회심설', '배자체불설' 등 다른 화엄 문헌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논의들은 의상 화엄사상의 스펙트럼을 한층 넓혀준다.

이처럼 중요한 문헌임에도 〈화엄경문답〉은 그동안 연구자들에게도 접근이 쉽지 않았다. 신라 시대에 사용된 구어체의 한국식 한문, 즉 변격(變格)한문으로 쓰여 있어 문장 구조와 개념 이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동국대 사학과 최연식 교수가 펴낸 〈의상 스님의 화엄경문답〉은 이러한 장벽을 넘어서는 역주본이다. 시대를 건너, 마치 현대 대학 강의실에서 오가는 토론처럼 쉽고 간명하게 우리말로 옮겼다. 원문에 자주 등장하는 생소한 개념과 독특한 문장 구조는 반복적 검토와 주석을 통해 풀었다.

문: 일승에서의 '세 곳에 회향한다[三處回向]'는 무슨 뜻입니까?

답: 중생과 보리(菩提)와 실제(實際)의 세 곳에 회향할 때 회향하는 바가 없는 것을 회향이라고 부른다.

문: 이미 세 곳에 회향하였는데 어째서 회향하는 바가 없다고 합니까?

답: 보살이 행을 일으키는 것은 곧 중생을 위한 것이고 보살의 행은 중생이 없으면 일으키지 않으므로 중생에게 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뜻 때문에 보살의 행은 옛날부터 중생의 것이며 단지 지금 (중생에게) 회향하는 것이 아니다. 〈하략〉



범어사 의상 대사 영정.
사진 출처=범어사박물관

역주는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화엄경문답〉을 저본으로 삼아, 일본 가나자와문고 소장 필사본 등과 대조해 교감했다. 또 변격한문으로 보이는 구절은 각주를 통해 정격한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제시했다.

〈화엄일승법계도〉가 의상의 이론적 토대를 집약적으로 제시한 저술이라면, 〈화엄경문답〉은 그 이론이 실제 강의 현장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질문과 응답을 통해 어떻게 심화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최연식 교수는 "정제되지 않은 듯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고, 공식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 보충 설명을 통해 당시 화엄학의 실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며 "〈화엄경문답〉의 재발견은 의상 개인의 사상을 넘어 의상 학파의 집단적 사유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불교공동체는 어떻게 유지돼 왔나



불교공동체와 계율
신성현 지음
여래
3만원

초기불교부터 계율·교단 변용 고찰
율장은 공동체 살리는 지혜의 기록
출가자 규칙 넘어 사회 윤리로 해석

'주차 금지' 구역에 세워진 차량, '흡연 금지' 표지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법과 규범이 일상에서 쉽게 무시되는 장면은 낯설지 않다. 인류 역사상 법과 제도가 가장 정교해진 오늘날에도 이러할진대, 2500년 전 부처님 재세 시의 공동체 운영은 어떠했을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결성된 승가공동체가 여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규칙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율장이다.

〈불교공동체와 계율〉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로 30여 년간 계율과 불교윤리 연구에 천착해 온 신성현 교수가 그간 발표한 논문 가운데 10편을 엄선해 엮은 연구서다. 초기불교에서 대승불교, 인도에서 동아시아와 한국불교에 이르기까지 계율 정신과 교단 운영 방식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어떻게 변용됐는지를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저자는 서문에서 율장을 '낡은 규범집'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갈등을 전제로 한 현실적인 공동체 운영 매뉴얼이자 사회적 지혜의 축적이라고 강조한다. 계율은 이상적 인간을 전제한 규범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것이다.

1부 '초기불교의 계율과 교단'은 붓다 당시 승가가 갈등은 조정하고 공동체를 유지해 온 구체적인 방식을 보여 준다. 특히 '승가갈마를 통해 본 재가와 출가의 관계'는 재가자와 출가자를 단절된 존재가 아닌 상호 의존적 관계로 조명한다. 의지갈마·구출갈마·복발갈마 등 다양한 갈마 절차는 출가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책임과 통제를 제도화한 장치였다. 이는 계율을 출가자 내부 규범에 한정하지 않고 재가자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으로까지 확장해 사유하도록 이끈다. 이 밖에도 초기불교 승가에서 화상과 제자의 관계, 화합승의 실현, 가섭과 아난의 관계, 승가 분열의 양상 등을 다룬다.

2부 '대승불교의 계율과 교단'에서는 불식육계, 보살계의 성립, 동아시아 계율 이해를 중심으로 계율이 시대 변화 속에서 새롭게 요청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살핀다. 이 중 '동아시아 계율 이해 연구'는 인도에서 성립한 계율이 중국·한국·일본으로 전해지며 각 사회의 윤리의식과 결합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한다.

3부 '불교 계율과 윤리'는 율장에 나타난 남녀차별 문제와 원광의 세속오계를 재검토하며 계율을 둘러싼 현대적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다. 저자는 율장에 나타난 차별적 요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인도 전통사회의 한계와 불교 사상의 평등 정신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불교가 다시 사회와 호흡하기 위해서는 계율과 교단이라는 불교의 뿌리를 새롭게 읽고 재해석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계율을 한 가지만이라도 지킨다면 세상은 더욱 청정하고 화합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한다. 여수령 기자

불교상담학, 이론에서 치유의 현장으로



불교상담학 연구
윤희조 지음
씨아이알
2만8000원

불교철학에 기반한 상담학 이론
심신 치유 '실천적 적용' 모색

전작 〈불교심리학 연구〉에서 불교심리학과 불교상담학의 이론체계를 제시한 윤희조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최근 펴낸 〈불교상담학 연구〉에서 구체적인 심리치료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실천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어 두 권의 책을 바탕으로 〈선심리학 연구〉 집필도 계획하고 있다.

1부 '불교상담의 주제'는 심리와 상담의 토대가 되는 존재론·인식론·진리론 등 불교철학 전반을 다루며, 나아가 깨달음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삼명, 사념처, 칠각지를 제시한다.

2부 '불교심리치료'에서는 업·사무량심·몸·돌봄을 치유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불교심리치료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살핀다. 3부 '불교상담과 서구상담'은 성격심리학, 성격발달, 자아심리학, 실존심리학, 영성심리학을 통해 인간 이해를 확장하고, 융심리학을 불교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한다.

여수령 기자



불교사상과 최신 생물학의 연관성을 탐구!
다르마와 DNA
저명한 진화생물학자인 저자가 DNA라는 구체적 실험 대상을 통해 불교의 명제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불교 사상의 원리와 논리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디 덴버 지음, 이동수 옮김/신국판/360쪽/값 24,000원

대승의 기원을 다룬 기념비적인 책!
불교와 에크리튀르
서양 인문학의 첨단 이론을 과감하게 접목하여, 대승불교의 역사를 사상사뿐 아니라 사회사의 관점에서 혁신적으로 재해석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시모다 마사히로 지음, 박현진 옮김/신국판/480쪽/값 28,000원

일본 고승들의 벼락같은 가르침!
번뇌와 함께 춤춰라
일본 명승들의 수행과 구도의 길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가르침은, 시공을 초월하여 현대인들의 마음에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와 깊은 울림을 준다.
함현준 지음/국판변형/240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